



| 금주의 성화

삼위일체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인으
로 추앙받는 안드레이 루블
료프의 이 이콘은 주님께서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
함에게 나타나신 성경 말씀
을 그린 것이다(창세 18,1-
15). 제일 왼 편 사람이 성
부를, 중앙의 사람이 성자
를, 오른쪽 사람이 성령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위에는
참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것은 낙원의 생명나무와 십
자가를 동시에 상징하며, 예
수님의 옷의 푸른색은 신성
을, 적갈색은 인성을 표현한
것이다. 삼위께서는 서로를
그속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안드레이 루블료프, 1410년경.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 소장.

† 오늘의 전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6-20 참조)

삼위일체의 도리는 사람의 논리와 지능을 넘는 것이어서 우리가 완전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
니다. 주님께서서는 어째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신비를 가르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 신비를 실천하여 삼위일체의 영원한 일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신명 4,32-34.39-40

제2독서 로마 8,14-17

복음 마태 28,16-2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삼위일체를 닮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시다



배상희 마르첼리노 신부 | 삼덕성당 주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는 천주존재, 강생 구속, 삼위일체, 상선벌약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밝혀진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이해의 차원이 아닌 신앙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성부께서는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구세주 성자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자 성령께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덕성당이 젊은이성당으로 지정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혼배성사를 합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혼배성사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신비에 속한다면 하느

님의 삼위일체는 더 완벽한 사랑의 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지, 덕, 체가 하나 되는 삼위일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열린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학교교사, 교회가 하나 되는 삼위일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 되어 삼위일체 방위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목이 되기 위해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모든 사람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대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들레를 만나다

정재숙 소피아

대문 앞 계단과 시멘트 포장길 사이에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

아, 여기서도!

이 포장길 틈바구니에서도?

가슴이 콕 막히도록 뜨겁게 쿵쾅거렸다. 눈물이 핑 돌며 목이 막혔다. 고마워, 고마워. 나도 모르게 섣노랗게 웃으며 쳐다보는 민들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너무나도 경이로운 생명 앞에 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벅찬 환희를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없이 드나들며 지나다니는 발길에 밟혀 흔적도 없을 작은 꽃이 ‘민들레’라는 이름의 존재로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앞에 노랗게 웃고 있다. 아, 나는 살아 있구나. 살아있어서 민들레를 보고 있구나.

민들레는 지금 알고 있을까? 자기가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운 곳이, 그가 생명을 이어가기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곳이라는 걸. 나는 그 민들레를 거름을 듬뿍 넣은 화분으로 옮기려다 아, 하며 손길을 거두었다. 이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가 살아낸 자리가 있 피우고 꽃피운 그

의 생의 최상의 자리임을 순간 간파했던 것이란 걸 깨달은 것이다. 다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기가 막히는 생존의 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한 송이 작은 꽃이 있는 한 우리는 잠시라도 삶의 벅찬 끈을 놓을 수 없다. 놓아선 안 된다. 살아있는 것은 꽃이 되는 일이다. 뿌리 내린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꽃으로 피어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꽃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속삭였다. “그래, 네가 그 자리에서 한 목숨 꽃으로 피어났듯이 나도 내가 얻은 내 자리에서 얻은 한 목숨 꽃으로 피우며 있는 힘 다 해 살게.” 바람이 민들레를 어루만지며 지나고 그는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길을 가던 사람이 민들레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보고 웃어 주었다. 또 한 해의 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우리는 노란 민들레를 만나거나, 나를 보고 웃어주는 이웃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게다. 

■ 금주의 성인 **성 보니파시오**

성 보니파시오 (6월 5일)



선교사요 대주교로서 순교의 영광을 쓰신 보니파시오 성인께서는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하여 사제로 서품된 후 라인 강 너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지금의 북부 독일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당시 문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였고 이교와 미신이 성행하였습니다. 성인께서는 가장 미개한 지역을 골라 복음을 전하셨으며 불우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754년 이교도들에 의해 살해되신 성인께서는 게르만 족의 사도로 불리시며, 오늘날 유럽의 문화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제1독서는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독서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 응답으로 백성들은 계약의 백성임을 상기합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은 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과 교리

삼위일체 - 그리스도교의 근본 신앙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느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신비로, 다른 모든 신앙의 원천이고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며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4).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느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느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는 것이지 그 “이름들”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한 분 하느님의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완전한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의 위격은 성자와 구분되고, 성자의 위격은 성부와 구분되며, 성령의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구분됩니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삼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느님의 각 위격은 서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일치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시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말씀과 성사

세례성사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은총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234**

묵상해 봅시다.

-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계시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준성사와 전례

준성사

준성사(準聖事)는 일곱 가지 성사를 본떠 교회가 제정한 것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준성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마귀를 쫓는 구마기도. 공적인 구마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2) 거룩한 전례를 위한 성전의 봉헌. 성전은 축성한다고 하지 않고 봉헌한다고 말합니다.

3) 기도에 도움을 주는 십자가와 성상, 묵주, 성패 등의 축복. 성경과 기도서, 성가집 등 책에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은 물건은 속된 용도로 쓰지 못하며, 판매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축복받은 묵주나 성상이 파손되었을 때는 아무 데나 버려서는 안 되고 깨끗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웁니다.

전례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의식을 말합니다. 전례의 의식은 모두 성서나 성전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어떻게 하라

고 규정되어 있는 대로 거행되어야 하고 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례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높은 전례로 미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성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인 성무일도가 있습니다. 미사나 성사가 아닌 다른 기도나 예식은 신심행위라고 합니다. 전례는 언제나 신심행위보다 중요하고 앞서기 때문에, 예컨대 미사 중에 저 혼자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에 참례할 때는 특히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참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찬미와 기도를 바치시고, 또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찬미를 받기도 하십니다. 둘째로는 전례를 바치기 위해 모인 신자들이 제각기 개인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 데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례에서는 개인적인 소원이나 지향보다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도 하고 찬미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미사 • 삼위일체 대축일

【입당성가】	81 영광의 주 성삼위
【제1독서】	신명 4,32-34,39-4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2독서】	로마 8,14-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21 너그러운 받으소서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파견성가】	83 주 찬미하라



† 2012 카리타스 장애인 문화축제

‘2012 카리타스 장애인 문화축제’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주최로 5월 26일(토) 오전 11시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에서 열렸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격려사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어 나와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바라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다.



† 제37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 대회

제37회 교구장기 직장 및 교회 테니스 대회가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 김종해 비오, 담당 : 김영호 알폰소 신부) 주최, 가톨릭체육인회 주관으로 5월 27일(일)과 28일(월) 양일간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테니스장 및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제2차 시노드 3차 전체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구장 대주교님께 올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모든 교우들은 한마음으로 성령께서 시노드 대의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 2012년 6월 6일(수) 10:30, 교구청 교육원 강당

† 금주의 주요 교구 일정

- ▶ 2012년 6월 3일(일) 10:00, 성동성당 견진
- ▶ 2012년 6월 4일(월)~8일(금) 교구사제 연례 피정(3차) – 한티 피정의 집
- ▶ 2012년 6월 10일(일) 11:00, 이곡성당 견진

복음화는 선택이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 토 14:00~17:00
장소: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문의: (010)3894-1332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6.9(토) 16:00
장소: 예수회관구본부
주제: 부제들이 들려주는 성소이야기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7197-740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6.22(금)~24(일)
4박 5일: 6.17(일)~21(목)
8박 9일: 6.25(월)~7.3(화)
이냐시오 4박 5일: 6.17(일)~21(목)
에니어그램: 8.4(토)~5(일)

성 빈센트 젊은이 성경통독 피정

기간: 6.22(금)20:00~23(토) 13:00
7.27(금)20:00~28(토) 13:00
장소: 수원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준비물: 세면도구, 회비: 1만 원
문의: (010)8833-8107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성경통독 피정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0:00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문의: (010)2568-5231
<http://cafe.daum.net/vocatio>

가족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2차 6.23~24(토~일) 13:00~13:00
3차 9.15~16 4차 10.6~7
장소: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4만5천원
문의: 선착순 80명, (054)971-0722

성 필립보 생태마을 8월 가족 피정

기간: 1기 8.20(월)~22(수)(2박3일)
2기 8.22~24 3기 8.24~26
주제: 지구 온난화, 참가비: 8만 원
문의: (033)333-8066, www.생태마을.org

모집 | 기타

작은예수회 창립 28주년 감사제

일시: 6.7(목) 11:00~16:30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특별강론: 박성구 신부, 오세만 신부
문의: (02)777-6444, 출발: 지역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노틀담 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기간: 8.2(목)~4(토) 09:30~18:00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http://cafe.daum.net/notredameorff>

하루 조이플스테이 (초등부)

일시: 6.17(일) 10:00~18: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주제: Dreams come true
회비: 1만5천 원
신청: (010)9056-9005

요한바오로2세 청소년사목 심포지엄

일시: 6.28(목) 9:00~18:00, 중식제공
장소: 의정부한마음수련원, 2만 원
주제: 청소년과 청년을 구원하는 구조
초청: 엘라 밀레스카(미국청소년사목자)
문의: 햇살사목센터, (02)744-0840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2~8.13 (3주)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5~8.6 (6, 7주 장기)
주관: 마신부님 (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미사 안내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6월 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6월 4일(월) 오전 11시	포항 죽도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4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4일(월) 오후 3시	봉곡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6월 4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꾸르실리스파 월례미사	6월 4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
해외선교 선교사 및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6월 9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떼제미사	6월 9일(토) 오후 6시	삼덕성당

신랑각시 혼인문화원
초혼 · 재혼 · 만혼
재혼(50세이상 성사비 없음)
소장 이 원 교(요안나)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멋진인생 에스텍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지점) 남구, 대곡, 동호, 두류, 만촌, 벌어, 산격, 서변, 성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8850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아토피/성장장애 • 감기출혈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한원 중국대 한의학과 교수
☎ (053)592-1275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가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대표 박영주(헬마), 박요안나
☎ (053)639-8998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밀레 매장 건물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아월 이마트내 2층·원장문세민 스테파노

SM **수맥흠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행사 | 모임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일시: 6.3(일) 19:0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내용: 성가곡 및 일반곡

문의: 장지옥, (011)9596-0009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결식아동돕기 밥콘서트

일시: 6.9(토) 17:00~20:00

장소: 동성로 228기념공원(우천시 취소)

출연: 7080 밥밴드, 재즈밴드 빌리브 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

장기기증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육 | 모집

6월 가나강좌

일시: 6.10(일) 9:30~17:3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 접수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시편 성가 연수 (김정선 수녀) 발성법 (박재연)

일시: 6.3(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POP, 초코아

트, 롤페인팅, 천연비누·천연화장품

지성인을 위한 신앙특강

일시: 6.16(토) 10:00, 남산동대신학원

주제: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행동을 하고있는가?

강사: 정희완 신부, 참가비: 5천 원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계절제)신입생모집

접수: 6.4(월)~6.8(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기간: 7.19(목)~8.18(토) 5주, 380만원

대상: 초4~중3 (선착순: 40명)

문의: 656-6655 (ARS 4번)

문의: 593-1273

•12회 성인해외봉사·어학연수모집중

경주 영어마을 영어캠프 모집

기간: 7.30(월)~8.18(토) 3주간

대상: 초3~중2, 주관: 대구가톨릭대

접수: 6.11(월)~15(금)

인터넷접수: www.gev.ac.kr (선착순)

문의: (054)777-8000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평신도로서 한국과 중국(대만)

의 상호교류와 중국말, 중국

노래에 관심 있으신 분

(빛잡지 6월호 22쪽 참조)

문의: 최창규, (011)808-8018

프카눔 공부방 학생 모집

첫모임: 6.9(토) 10:00

장소: 프란치스코눔

대상: 중 1~3년

문의: (070)4266-0045

채용

내당 신협 직원 모집

대상: 남 1명, 군필, 금융경력자

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문의: 554-5522

대구 정신병원 간호사 모집

마감: 6.15(금)

문의: 총무과, 630-3001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성수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교우님우대할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구교재단
대례사소비선택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아채·선어·정육
신선·가공식품·공산품·생필품
생활·패션잡화·수입주방·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산도)신부

서정희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30년 전통의 전자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들옥돌침대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네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춘호(레오)

“2대째 30년 전통”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3003
비산네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